

# 어린이날 전주동물원 특별 교통대책 추진

### 시, 극심한 교통 혼잡 대비 임시주차장·무료 셔틀버스·교통지도·차량 통제 실시

전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원 방문을 계획한 전주시민들에게 대중교통과 임시주차장,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제101회 어린이날'인 오는 5월 5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전주동물원 주변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되면서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해왔으며,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전주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려들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어린이날에는 전주동물원에 총 3만7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 어린이날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만10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더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동물원과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이동 및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원이 개장하는 오전 8시부터 경찰 및 교통봉사자 합동으로 주차장 수용상황 및 교통 흐름의 변화에 맞게 차량통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호성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동물원로의 진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동물원 주차장에서 호성동 방향으로의 진출만 허용된다.

조경단 삼거리에서 동물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소리로에 대한 교통통제

는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는 동물원 주차장이 만차된 이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삼거리까지 양측 도로의 갓길 주차가 임시로 허용된다.

이어 2단계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과 주차장 입구까지 양측 갓길에 주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인 전북대학교와 유아중학교 등으로 차량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동물원 방문객을 위한 무료 임시주차장은 △전북대학교(2000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노상주차(926대) △김길공원주차장(200대) △배드민턴경기장(140대) △어린이회관(300대) △우아중·북초(350대) 등 총 9곳에 마

련되며, 40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다.

시는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아중학교 교문 앞과 전북대학교 버스회차지 등 2개소에서 동물원까지 무료 순환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전주동물원은 매년 어린이날이면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변 도로의 차량정체가 극심해진다"면서 "전주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물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만큼 가까운 임시주차장에 주차한 후 셔틀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은경 기자

# '온 가족 놀이 한바탕' 열렸다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날 앞두고 다채롭게 진행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지난달 29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아동용 양육하는 120가정(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 가족 놀이 한바탕'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와 응급구조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놀이팀, 전주시 덕진구·완산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으로는 '궁정의 가족'과 '아름다운 이웃'을 주제로 한 교육형 체험활동을 비롯, △나만의 액자 만들기 △한복 꾸미기 △한복 입기 △전통놀이 △피클 만들기

△저녁 소금 만들기 등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심폐소생술, 미세먼지 대응, 올바른 양치법 등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장에는 페이스페인팅과 포토존 등 다양한 놀이 체험도 마련됐으며, 7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에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 선물도 제공됐다.

손경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시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온 가족 놀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모 상담과 양질의 양육환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 전주시, 우호도시 중 시닝시와 교류 협력 강화

### 시닝시 대표단, 전주 방문...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교류 협력사업 확대 등 논의

전주시가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시닝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장아이홍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시닝시 대표단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과 교류 협력사업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시닝시 대표단은 첫날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개막식에 참석하고, 27일에도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연이은 국제행사를 개최한 전주시를 축하했다.

이들은 또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시찰하며 전주시와의 문화교류사업을 논의했다.



전주시가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시닝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교류를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을 찾은 시닝시 대표단은 에너지와 바이오 등 4차산업을 선도하는 시닝시 산업을 소개하고, 전주와 함께 신성장

산업 교류와 관련 연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시닝시 대표단은 28일 김인태 전주 부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 확대와 전주국제영화제와 시닝 퍼스트(FIRST) 청년영화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전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장아이홍 시닝시 부시장은 "전주국제영화제 등 굵직한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에 참가하여 전주의 문화도시로서 명성을 실감했다"면서 "전주국제영화제와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영화제인 시닝 퍼스트 청년영화제와 교류 등을 통해 동시대 문화교류와 더불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여름휴양도시'로 유명한 시닝시는 청하이섬의 성도로서 칭짱고원 동서부에 위치한 인구 248만 규모의 도시로, 전주시와 지난 2012년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조아록 기자

# 이병호 전주인재육성재단 제5대 이사장 선임

전주시는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설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을 이끌 어갈 5대 이사장으로 이병호 전주수병원 병원장이 선임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 4년이다.

지난 2001년부터 전주 수병원을 운영해온 이병호 선임 이사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 호남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제의료 협력단(PMIC)에 소속돼 네팔, 예멘, 태국,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쳐온 인물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20여 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



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써왔다.

이병호 선임 이사장은 "인재 양성이 지역의 경쟁력이다 라는 신념으로 전주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 인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과 목표들이 극대화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출연기관인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정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 △성인문해 우수교육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인재의 학문 탐구 의욕과 애학심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아록 기자

# 전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전주시가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무병기 전주시민의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은 토익

(TOEIC)과 토플(TOEFL) 등 어학시험 19종의 응시지에 대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에 걸쳐 응시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어학시험에 응시한 청년(1983년생~2004년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으로, 시험응시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자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어학시험 응시확인서 △어학시험 결재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신청자가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지원조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오는 6월 10일경 상반기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접수는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라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구직 청년들의 정액 수요가 높은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구직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 '자활상품 시군 순회장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서 열려

전북지역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판매장터가 마련됐다. 전북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자활상품 시군 순회장터가 지난달 28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8개 지역자활센터의 17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들이 참여해 △친환경비누 △수공예품

△농특산물 등 30여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

'자활상품 순회장터'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을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전시·판매·홍보하는 행사로, 자활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은경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